

출판계, 도서전 계기로 '대화합' 짚고, 프랑크푸르트 간다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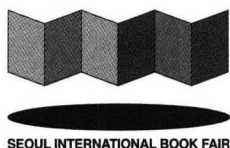
◎ “가자 책으로 세계로 미래로”

2005년 서울국제도서전이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박맹호) 2005 서울국제도서전 조직위원회 주최로 6월 3일(금)부터 8일(수)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과 인도양홀에서 열린다.

1954년에 처음 개최, 올해로 43회를 맞는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은 지난 도서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점이 몇 가지 눈에 띈다. 먼저 프랑크푸르트도서전주빈국 행사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이다. 주무대가 될 주빈국관은 주빈국조직위원회에서 맡아 진행한다. 하지만 305평에 달하는 한국관은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체인 출판인들이 장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판계로서는 세계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서기에 앞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이다. 주최측은 “2005 타이베이국제도서전 주제국가 참가에 이어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앞두고 열리는 때이므로 더욱 성대하고 알찬 전시를 준비하였다”며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세계 데뷔의 원년이 될 것이며, 문화산업의 근간인 우리나라의 출판산업도 이번 서울국제도서전부터 세계로의 행보가 시작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문화관광부도 예산 지원으로 힘을 보탤다. 2억 5,000만 원이었던 작년에 비해 5,000만 원 오른 3억 원을 지원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출판계의 대화합’을 첫 번째 과제로 내세워 당선된 박맹호 회장 체제에서 열리는 첫 번째 도서전이라는 점이다. 그동안의 도서전이 단행본 출판사의 소극적인 참여로 반쪽 도서전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도서전에는 한국출판인회의가 부스를 따로 냈을 뿐 아니라, ‘단행본공동부스’와 ‘인문학을 살리자’ 부스에 참가하는 단행본 출판사만 해도 70여 개에 달한다. 이 외에도 동녘, 푸른숲, 바다, 돌베개, 창비, 효리원 등 그동안 도서전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출판사가 개별부스를 내고 참가했다. 주최측은 작년의 경우 위탁전시까지 합쳐서 196개 출판사였지만 올해에는 실제로 부스를 낸 출판사만 194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 때문에 관람객 입장에서도 이번 도서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책의 축제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출판사들의 참여와 정부지원,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특별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서울국제도서전 실무를 맡고 있는 이해원 씨(대한출판문화협회 기획사업부)는 “그 수로 따지면 지난 3,4년 동안의 특별행사 수와 맞먹을 정도”라며 “그만큼 우리 출판문화가 다양하고 풍부해진 것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출판전문가들도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한국출판의 세계화, 출판산업의 경쟁력 강화, 독서하는 사회 분위기 정착, 국민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라는 목표에 꾸준히 매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국제도서전은 현재 세계 27개 주요 도서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명성과 위상을 크게 높여가고 있다.



● 서울국제도서전 로고.

● 2005 서울국제도서전 포스터.



2005서울국제도서전

제2회 서울세계북아트전

책의 형식을 취한 시각미술인 북아트 작품의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관람객들이 책 제본 실습, 종이접기 실습 등 북아트 실습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제1회 대한민국의 신인 북디자인 공모전은 국내외 총 134개의 응모작 중 심사를 거쳐 추려진 공모전 입선작 28개 작품 및 작가들의 소장품을 한곳에 모아 전시한다.

유명 작가 육필 원고전

작가가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정성, 즉 육필 원고만이 지닐 수 있는 진지함을 직접 보게 된다. 이번 도서전에서는 이오덕, 윤동주, 정지용, 기형도, 최인호, 이문열, 한승원, 박완서, 조세희, 김훈 등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작고문인 20인과 생존문인 20인의 육필원고 전시를 통하여 컴퓨터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전시를 통해 창작과정과 필체 등 육필 원고만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생생히 전달하여 원작과 작가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자 했다.

2005 FBF 주빈국 특별전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에 대한 사전 홍보를 위하여 마련된 전시로써,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하며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개요 및 역대 주빈국을 소개하여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자리다.

안데르센 탄생 200주년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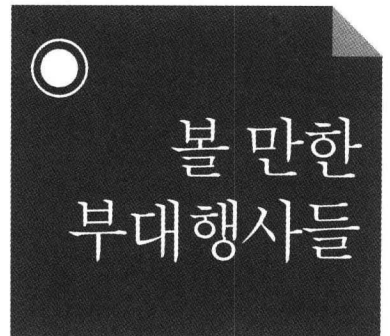
'동화의 왕'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출간된 안데르센의 작품 및 일러스트 원화를 전시하여, 관람객 및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시장에는 안데르센의 일대기를 소개하여, 작품으로만 만났던 안데르센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관객들은 인어공주, 별거숭이 임금님,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새끼, 빨간 구두 등 주옥같은 안데르센의 작품들을 접하고 동심의 세계로 빠져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직지홍보 특별 전시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직지直指'를 전시하고, 금속활자의 제작과정을 소개하며, 고인쇄체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쇄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했다.

출판산학협동관

각 대학 및 고등학교의 출판관련 학과 참여를 통하여 각 학교의 출판학과, 커리큘럼, 교수진 등을 홍보하며 출판계와의 협력 및 구인구직 활동을 추진하는 자리이다. 또한 채용박람회 형식을 통해 관람객 유치 및 출판계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 2004 서울국제도서전때의 모습.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행사로 꾸며졌다.



저자와 사진 한장

단순히 사인회나 강연회를 하는 정도를 넘어 저자와 독자와의 적극적인 만남을 추진하는 행사이다. 유명 저자뿐만 아니라 문학, 건강, 예술, 노년, 일러스트, 사진 등 여러 분야의 저자를 초청하는 축제적 행사이다. 저자와 독자가 함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바로 출력하여 액자에 넣어 기념품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사인 도서를 증정하는 등의 기회를 통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해당 작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

* 참여작가 : 김진경 《고양이학교》, 유경 《마흔에서 아흔까지》, 이원복 《신 세상만사 신 유럽만사》,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 이원우 《갯벌에 뭐가 사는지 몰래요》 등

독서운동단체 초청

현재 우리나라에는 책 읽는 사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많은 독서운동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의 자발적인 운동이 자유롭고 역동적인 독서문화의 진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이번 전시는 독서운동 관련 단체를 초청하여, 단체별로 중점을 두는 독서 권장운동과 독서문화 사업 등을 홍보하여 다양한 독서진흥 활동의 장을 마련한다.

독자공간 책읽는 숲

자연친화적으로 꾸민 '책 읽는 숲'은 도서전에 온 관람객들이 쉬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독자 공간이다. 간단한 음료 혹은 샌드위치 판매대도 준비되어 있으며 관람객들은 벤치 또는 바닥에 자유롭게 앉아서 책을 접할 수 있다. 입구엔 책으로 된 조형물이 설치되어 포토스팟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책장 및 테이블 위 책꽂이에는 참가 출판사의 협찬을 받아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책이 비치된다.

책 조형물 설치

집 모양의 조형물을 만들어 책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관람객들이 포토스팟으로 활용하여 도서전 방문을 기념할 수 있다.

'책 버스 다모아라'

시간이나 공간상의 이유로 도서관에 갈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럴 때 책버스는 독서의 생활화에 기여하는 매우 유익한 존재이다.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전국에서 활동중인 책 관련 이동버스를 초청해 전시한다.

서울국제도서전 공식 기념 스탬프

도서전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기위해 도서전 전시장 내에서 구매한 도서 및 각종 전단지에 찍을 수 있는 서울국제도서전 공식 기념 스탬프를 마련했다. 이러한 직접 체험 행사로 인해 어린이 관람객들의 흥미를 증가시키고 성인관객에게는 본인들의 책에 대한 소장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은 체험학습 확인용으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관람객 경품 추첨

서울국제도서전에 찾아준 관람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하여 도서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전문인 세미나

전문인 세미나로는 '출판산학협동,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열리는 출판산학협동 포럼과, '현대의 북아트 작품'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해외 유명 북아티스트 초청 세미나(뉴욕에서 북아트 작업을 하고 있는 키스 스미스, 스콧 매카니 발제), 그리고 한국도서 저작권 해외 마케팅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조직위측의 제의로 열리는 '한국도서저작권 해외 마케팅 방안' 은 해외 저작권 수출에 관심 있는 출판인들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홀거 에링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부조직위원장의 사회로 첫날에는 영국 피어슨 교육(영국)의 리넷트 오웬과 호주출판서적상협회 편집장 앤드류 윌킨슨이 각각 <저작권 및 라이선스 판매 방법>과 <국제 저작권 및 라이선스 시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튿날에는 독일헤센방송국 편집자 루타트 슈태블라인과 세계은행 출판인 디어크 쾰러, 프랑스 악트쉬드 출판사 한국문학담당 편집인 모뤼스 파트릭, 뉴욕 소재 독일도서사무소 소장 리키 슈톡,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영업부장 조이스 아라베나 등이 각각 <국내 미디어에서의 해외문학 홍보 가능성> <해외출판사에 성공적으로 판매하는 방법> <무엇이 팔리고 무엇이 팔리지 않는가?> <저작권 및 라이선스의 전략적 마케팅> <효율적인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참가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주요**

정리 신동섭기자

● 2004 서울국제도서전때의 모습.

